

후두암환자에서 후두전체조직표본과 MRI 및 CT 소견과의 비교

연세의대 음성언어의학연구소, 이비인후과
김광문 · 김영호 · 홍원표 · 최은창

방사선과

김 동 익

후두전체조직표본의 절개는 1903년 Spalteholz가 성대중양부의 관상절개로 정상해부를 살펴본 이래, 해부학적 위치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져 왔으며 수평면, 관상면, 시상면의 절개와 그를 이용한 선천성 및 악성후두 질환의 연구, 종양의 조직병리소견과 방사선소견과의 비교연구 등이 있어 왔다.

저자들은 후두악성종양의 철저한 연구를 위하여 후두전체조직표본의 조직병리소견과 MRI 및 CT 소견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후두의 해부학적 구조 및 주변조직과의 관계, 종양의 파급경로를 알아보고 MRI와 CT의 한계성 및 각각의 우월성을 입증해 보고자 후두악성종양의 진단하에 후두전적출술을 시행하여 얻은 후두 전체조직표본을 탈석회화후 관상절개하여 같은 위치의 MRI 및 CT 소견과 비교하였다.

두경부 신경성 종양

예수병원 외과

박철오* · 오성수 · 이삼열 · 박윤규

신경성종양은 신경관(neural crest)에서 유래되며, 연관된 세포는 Schwann cell, ganglionic cell, paraganglionic cell 등이 있다. 두경부에서의 본 종양은

그리 흔하지 않고 위치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질병과의 감별이 어렵다.

저자들은 1980년 부터 1991년까지 예수병원 외과에서 치험한 신경성 종양중 두개강내에서 발생한 예와 Von-Recklinghausen씨 병을 동반한 경우(50례)를 제외한 순수 두경부 신경성 종양 49례를 임상적 고찰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두경부 신경성 종양의 빈도는 남자보다 여자에서 약간 호발하였으며(1 : 1.72), 신경초종(neurilemmoma)의 경우 20대에 7례(29%)로 가장 많았고, 신경섬유종(neurofibroma)의 경우는 30대에서 6례(3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2) 주 증상은 전례(100%)에서 종괴를 보이고, 3례(6%)에서만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었다.

3) 종괴의 크기는 3cm 미만인 25례(51%)였고, 5cm 이상도 7례(14%)였다.

4) 발생장소는 경부가 38례(78%)로서 가장 호발 부위였으며, 신경초종의 경우 경부전방삼각부(anterior triangle of neck) 8례, 경부 후방삼각부(posterior triangle of neck)가 11례이나, 신경섬유종의 경우는 각각 4례, 13례였다.

5) 수술전 진단은 신경초종에선 경부 림프절종대(cervical lymphadenopathy)와 결핵성 림프절염(tuberculous lymphadenitis)로 생각했던 경우가 각각 5례(21%)씩으로 많았으나, 신경섬유종의 경우 10례(40%)에서 신경성종양으로 진단되었다.

6) 수술은 양성 총 47례중 완전절제술을 43례에서 시행하였고, 4예는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악성 2례의 경우는 모두 완전절제술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1례에서 술후 방사선요법을 병합실시하였다.

7) 신경 기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28(57%)례중 신경초종의 경우 경부신경총(cervical plexus) 5례, 상완신경총(brachial plexus) 4례, 신경섬유종의 경우 각각 5례, 3례였다.

8) 조직병리학적 진단은 신경초종 24례(49%), 신경섬유종 23례(46%)이고, 악성 신경초종이 2례(5%)였다.